



김응서 소장, 배동신 작 '인물'



이영규 소장 송필용 작 '삼일포'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열다

미술애호가 '광주화광회 소장전' 23~29일 대동갤러리

회원들 비장품 공개·작가들 신작 전시

15년 전 광주시 동구 예향 화랑. 우연히 들른 화랑에서 푸른 배경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어우러진 수채화가 김응서 광주미술관회 회장의 눈을 사로 잡았다. 그는 단박에 그 수채화를 구입했다. 작품은 한국수채화 거장 고(故) 배동신 화백의 '인물'이었다.

김 회장은 "배동신 화백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화폭 속 여인들의 모습이 배동신 화백의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 구입하게 됐다"며 "가장 아끼는 작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예향' 광주에는 예술가도 많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다. 광주지역 미술애호가와 화가들의 모임인 소장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광주화광회(회장 김관재)는 23~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대동갤러리에서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주제로 제1회 화광회 소장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애호가 회원들은 비장품(秘藏品)을 공개하고, 작가 회원들은 신작을 선보인다. 광주교법과 광주교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6점도 선보인다.

화광회는 '화합하는 광주'라는 의미로 '화광동진'(和光同塵)에서 따온 말이다. 지난 2010년 10월 김양균 변호사(화광회 명예회장·전 초대 헌법재판소장)의 제의로 만들어졌다.

광주일보와 (사)광주미술관회가 지난 2010년 기획한 일본 나오시마 지주미술관 문화여행단 참가자들이 주축이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교법이 소장한 허백련의 '광명정대', 황영성 '가족이야기', 노경상 '계곡' 등 3점, 광주교검에 있는 허건 '송(松)', 정승섭 '설경', 정승주 '화향' 등 3점이 전시된다.

또 김양균 변호사는 이미나 작가의 '꽃의 여행', 김관재 변호사는 작가미정의 '산사 가는 길',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는 한희원 작 '은행나무 아래를 걷다', 김영삼 D갤러리·동아기술공사 대표는 여동현 작 'Welcome to Paradise', 문정현 광주변호사회장은 민병갑 작 '자연과의 공존', 이영규 세무사(전 광주세무서장)는 송필용 작 '삼일포'를 전시하는 등 회원들의 사연 깊은 예술품이 관람객을 찾아간다.

광수봉, 류재용, 박병우, 한희원, 허정 등 화가들도 신작을 전시한다. 한편 화광회는 기업인,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화가, 미술평론가, 패션디자이너, 세무사, 무용가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있다. 김양균 변호사가 명예회장을, 김응서 광주미술관회장이 이사장을, 김관재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문의 062-222-0072. /김민경기자 kki@kwangju.co.kr

첼리스트 김민지와 클래식 여행을

27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태형과 호흡

떠오르는 첼리스트 김민지가 광주에서 27일(오후 7시30분) 독주회를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스페셜리스트 시리즈 6번째 행사로 기획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 전역 장학생으로 학위를 받은 이후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등에서 수학한 김씨는 로린 마젤이 이끄는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직책 단원(부수석)을 맡았다.

현재 계명대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씨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금호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 멤버며 독일 피라스트로 후원 아티스트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그녀와 호흡을 맞추는 이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다. 2004년 포르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며 세계 음악계에 등장한 그는 이후 톨티보 국제 콩쿠르, 엘 엔리자베스 콩쿠르 등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태형



김민지

연주회 레퍼토리는 프랑스와 스페인 작곡가의 곡들로 꾸며졌다. 가스파 카사도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사랑의 속삭임', 마뉴엘 데 파야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7개의 민요'를 편곡한 '6개의 첼로를 위한 6개의 에스파냐 민요', 블랑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143'이다. 전석 2만원. 문의 062-360-8437. /김민경기자 mekim@

가야금으로 듣는 비발디 '사계'

광주가야금연주단 오늘 정기연주회

광주가야금연주단(단장 송영란)이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제27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오동나무의 사계절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는 환경오염으로 파괴되는 사계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비발디의 '사계'를 재해석한 창작곡을 초연한다. 광재영씨 등 신예 작곡가들이 새롭게 편곡한 '사계'는 25현 가야금 3중주와 4중주로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화 '귀여운 여인' OST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모음곡 2번' 서정적인 선율에 탕고 리듬을 입혀 가야금 연주로 편곡한 존필드의 '야상곡'과 피아졸라의 '리베르 탕고', 영화 '노랑 할' 주제곡 'She' 등을 연주한다.

1989년 성애순(전남대 교수)씨를 초대 단장으로 창립한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전통과 창작곡을 비롯해, 클래식·영화음악 등을 가야금으로 재해석,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 왔다.

이와 함께 영화 '귀여운 여인' OST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모음곡 2번' 서정적인 선율에 탕고 리듬을 입혀 가야금 연주로 편곡한 존필드의 '야상곡'과 피아졸라의 '리베르 탕고', 영화 '노랑 할' 주제곡 'She' 등을 연주한다. 1989년 성애순(전남대 교수)씨를 초대 단장으로 창립한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전통과 창작곡을 비롯해, 클래식·영화음악 등을 가야금으로 재해석,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 왔다. 문의 062-530-3910. /김민경기자 kki@kwangju.co.kr



잊혀진 풍경 위로 클래식이 흐른다

음악감상실 '베토벤'서 6월20일까지 박진우 개인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자리한 클래식을 약감상실 '베토벤'이 이번에는 지역출신 화가를 초청, 전시회를 열고 있다.

베토벤 31주년 감사 이벤트로 마련된 전시회는 무안 출신 작가 박진우의 '잃어버린 시간'전. 잊혀진 과거의 흔적들을 복원하는 몽환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박 작가는 유년 시절 보았던 물건들을 10~2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 타임캡슐에서 꺼내듯 잊혀진 풍경을 현실과 연결시켜 주는 그림 15점을 선보인다. 지금까지 33회 개인전과 초대전을 가진 박씨는 충남 미전 특선, 대전 시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미협 수채화 분과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작가는 두달 전 지인의 소개로 '베토벤'을 방문했다가 오랜 추억과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 자신의 작품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전시회를 기획했다.

그는 "광주에서의 개인전은 처음인데다 일반 갤러리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인 '베토벤'에서 전시회를 열게 돼 감회가 크다"며 "이곳 베토벤에 담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작품활동을 하다보니 기존 그림 보다 색감이 화려해지고 스스로도 작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베토벤 사장 이정옥(58)씨는 "박진우 작가와 친분이 있던 단골 고객의 주선으로 전

시회까지 열게 됐다"며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전시를 감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222-8410. /이보람기자 bora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Duniopillo

세계최고 **단롭침대 라텍스 판매**

중저가 **엔틱소파 7종류** 신상품

중저가 **확장형식탁, TV장** 신상품

자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